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안수-하편>>

<차례>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2) 조선의 얼, 광화문 ----- 1쪽 (15문제)

(3)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 10쪽 (12문제)

6. 함께 만드는 세상

(1) 두근두근 내 인생 ----- 18쪽 (37문제)

(2)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 44쪽 (19문제)

7.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1) 국어의 문법 요소 ----- 53쪽 (60문제)

(2) 국어의 어제와 오늘 ----- 71쪽 (61문제)

(3)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 ----- 86쪽 (4문제)

8. 한국 문학의 빛깔

(1) 시조 두 수 ----- 90쪽 (39문제)

(2) 속미인곡 / 진달래꽃 ----- 102쪽 (27문제)

(3) 허생전 ----- 114쪽 (49문제)

9. 문제를 해결하는 힘

(1)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 144쪽 (11문제)

(2)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한다. --- 152쪽 (10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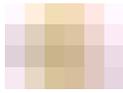
▶정답 -----158쪽

▶해설 -----161쪽

(버전: 2020.08.04.)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오류 신고 및 문의 (카톡 ID: pt005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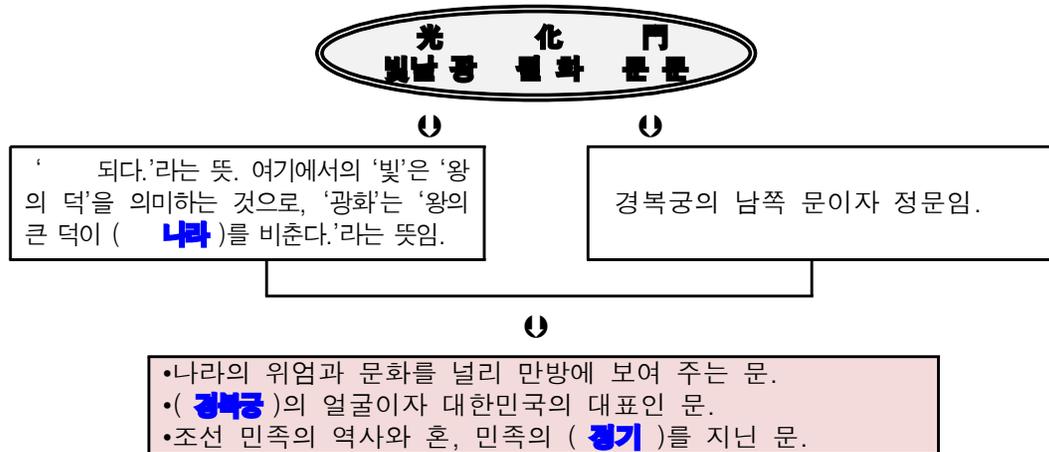
제재 개관

갈래	설명문
성격	사실적, 역사적
제지	광화문의 역사.
주제	광화문이 겪어 온 수난의 역사와 복원 과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제목을 설정하여 광화문의 수난 역사와 복원 과정을 서술함. •신문 기사와 역사적 자료를 인용하여 광화문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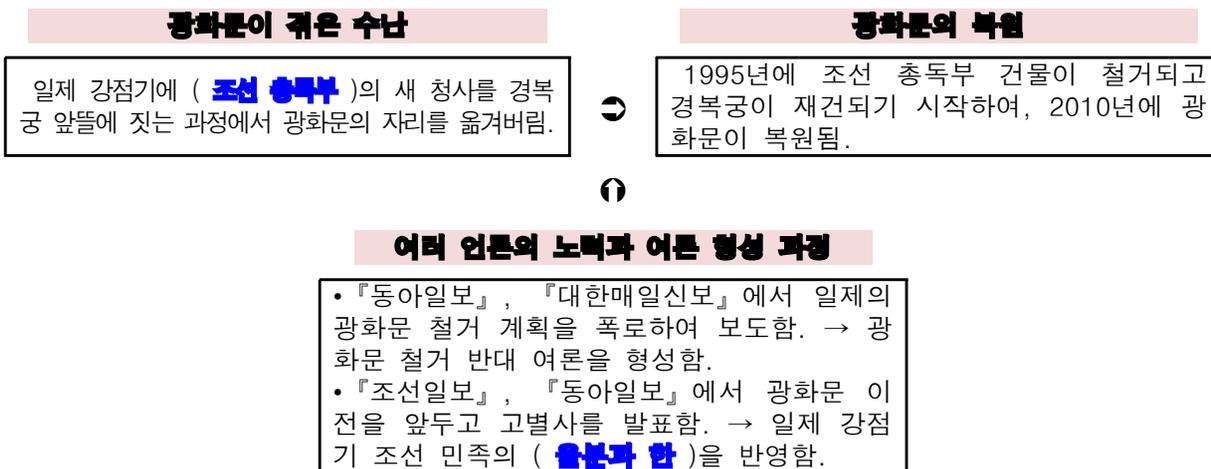


핵심 정리

1. '광화문'의 뜻과 의미



2. '광화문'의 수난과 복원의 역사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제강점기의 광화문, 아픔을 겪다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光化).’라는 뜻을 간직한,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입니다.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으며, 석축을 높게 쌓고 중앙에 홍예문을 터서 문루를 얹은 궤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건 당시 ‘오문’으로 불리던 광화문이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426년 세종 때입니다. 이는 집현전 학사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 준다는 뜻으로 새로이 붙인 것입니다.

원래 경복궁은 광화문-근정전-사정전-강녕전-교태전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에 세우면서, 광화문을 빼앗아 버려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원래 남산에는 단군을 비롯한 여러 신을 모신 국사당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이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광화문은 이름과 달리 수난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구한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온몸으로 받아 내야 했던 근현대사의 비극을 압축해 담고 있는 셈입니다.

총독부 새 청사, 광화문을 밀어내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지 6년째 되는 해, 조선 총독부는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선을 영원히 식민 통치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갔습니다. 일제가 새 청사의 터로 선택한 것은 오백년 조선 왕조를 호령했던 경복궁 앞뜰이었습니다.

다음은 1910년 5월 15일 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경복궁이 없어지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0년 5월 10일 왕실 사무를 총괄하던 궁내부는 경복궁 내 공원 신축을 위해 전각 4,000여 칸을 경매했다. 조선인과 일본인 80여 명이 경매에 참여했고, 이 중 10여 명에게 전각이 매각됐다.

일제의 총독부 새 청사가 모습을 갖춰 갈수록 경복궁은 점점 더 초라한 몰골로 변해 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광화문이 눈엣가시였습니다. 경복궁의 다른 전각이야 조선 총독부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는데, 광화문은 조선 총독부 앞을 딱하니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를 가만히 놔둘 리 없었습니다.

사라지려는 한 조선 건축물을 위하여

1921년 5월, 「동아일보」는 광화문 사진을 커다랗게 싣고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처음으로 폭로하였습니다. 총독부 새 청사가 완공될 무렵에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을 헐어 버릴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도 1922년 10월 5일 광화문 보존 문제에 관한 기사를 실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돌아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센 여론에 밀려서일까요?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접고, 대신 광화문의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23년 10월, 광화문 앞 양측에서 수문장 노릇을 하던 해태 석상 두 점이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일보」는 1925년 10월 26일, 「나는 가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애절한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이는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픈 심정을 광화문 스스로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1926년 7월 22일에는 광화문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춘문(경복궁의 동쪽 문) 옆으로 옮기는 것이라도 해도, 본래의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존재 가치는 빛이 바래게 됩니다.

광명북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일본인도 있었다.
- 언론 보도로 인해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다.
- 광화문은 1995년에 복원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 완공되었다.
-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해 조선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하고자 했다.
- 일제가 광화문을 남산이 바라보이도록 한 것은 신사를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광명북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읽기 중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광화문의 철거와 복원을 시대 순으로 정리해 본다.
- 광화문 철거 소식을 들은 우리 선조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찾아 본다.
- 경복궁의 건축 양식을 찾아보고 궁의 건축 양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본다.
- 「대한매일신보」 1922년 10월 5일 기사 내용을 검색해 보고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본다.
- 철거 전 광화문 사진과 이전된 광화문 사진을 찾아보고 광화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본다.

운암고등학교 (대구)

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 드러나 있다.
- '광화문'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시대 순으로 설명하였다.
- 소제목을 설정하여 광화문의 수난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 광화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신문 기사와 역사적 자료를 인용하여 광화문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였다.

운암고등학교 (대구)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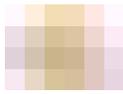
- 원래 광화문은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 광화문 철거 소식에 일부 일본인 학자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 일제는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고 나서부터 경복궁의 훼손을 시작하였다.
- 일제는 광화문의 자리를 옮기는 계획을 세웠다가 철거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 동아일보는 의인법을 활용한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광화문 철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운암고등학교 (대구)

5. 밑줄 친 단어 중, ㉠의 사전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나는 내가 읽던 페이지를 접어 놓고 책을 덮었다.
- 그 사람의 말은 허풍이 많으므로 접어 듣도록 해라.
-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하기로 했다.
- 물건값이 원래 구만 원인데 만 원은 접고 팔만 원만 주세요.
-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일단 접고 다른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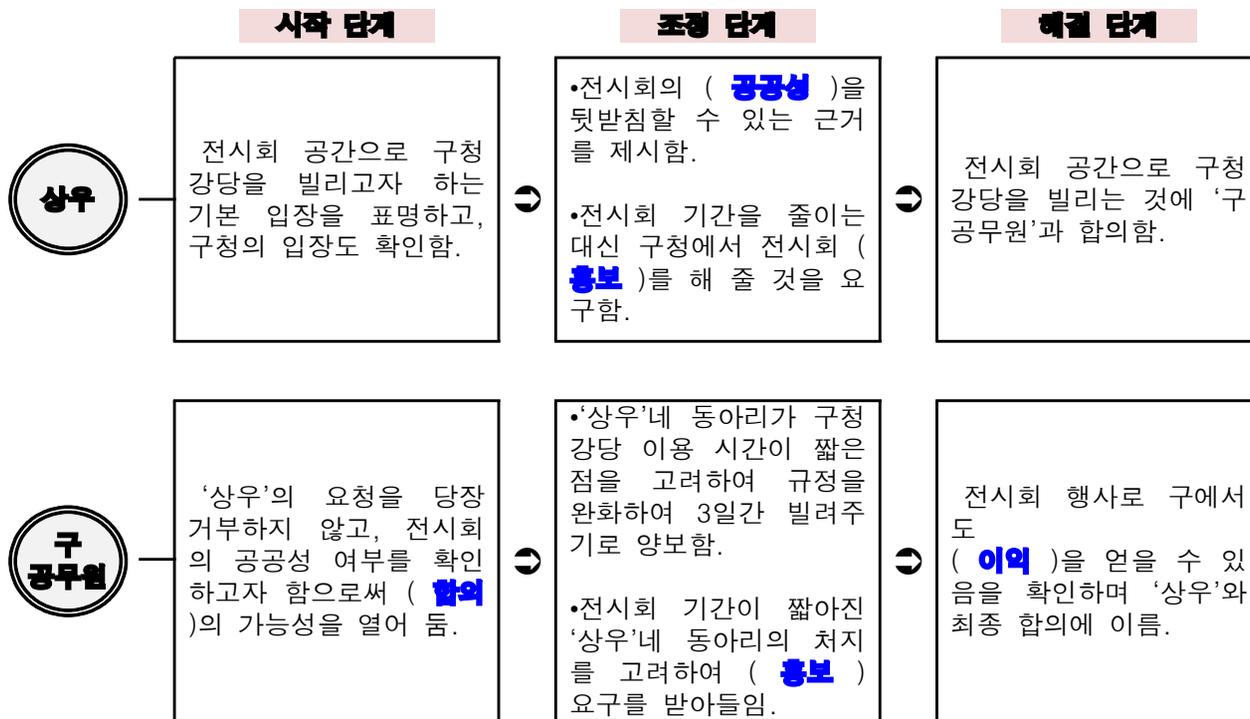
제재 개관

갈래	협상
성격	설득적, 논리적
제지	구청 강당의 대여 여부.
주제	사진 전시회를 열 공간으로 구청 강당을 빌리는 문제에 관한 협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의 진행 단계가 잘 드러남. •협상 참여자들의 문제 해결 전략이 나타남.



핵심 정리

1. 협상 참여자의 단계별 진박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우 :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 고등학교 일학년 박상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름다운 웃음'이라는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전시회를 할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구 공무원 : 학생 동아리라면 학교에서든 전시회를 열 수 있을 텐데 굳이 구청 강당을 전시회 장소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우 : 이번 전시회는 우리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장소로 학교보다는 구청 강당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 공무원 :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강당을 토론회나 교육 행사, 주민 모임 등의 주민 공동체 활동 장소로 빌려 드립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강당을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구청이 가진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먼저 그 사진 전시회가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강당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우 :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등학생인 저희가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할 거예요.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자는 의미도 있지요.

구 공무원 :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자는 내용만으로는 전시회의 공공성이 좀 약합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좀 더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도 있을 텐데요.

상우 : 네, 있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학교 사진 동아리 누리집에 올리면 한 장당 일정 금액이 모금됩니다. 그렇게 모금된 돈은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이 정도면 전시회의 공공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공무원 : 동아리 누리집에 사진을 올리면 후원금이 모금되고 그것으로 △△어린이 재단을 후원한다니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사진 전시회를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상우 : 네, 정말 잘 되었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전시회를 열 예정인데 그때 강당을 빌릴 수 있나요?

구 공무원 : 아, 그건 곤란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라 강당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만 강당을 사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강당을 운영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 구에서는 다른 주민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개인 및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상우 : 그렇군요. 저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해서, 평일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3시간씩 강당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시를 하기에 2일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구 공무원 : 음, 그렇다면 다음다음 주에 전시회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는 강당을 사용하는 행사가 없고, 아직 다른 단체에서 강당을 빌려 달라고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이 강당을 빌려 쓰는 시간이 짧기도 하니, 이를 고려해서 3일간 강당을 쓸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상우 : 전시회 날짜를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전시회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줄면 관람객이 적어질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해 주실 수 있나요?

구 공무원 : 전시회를 홍보해 달라고요?

상우 : 네, 전시회를 여는 3일 동안 최대한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싶은데, 학생들이 저희로서는 지역 주민에게 전시회를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요.

구 공무원 : 저희도 업무로 바쁘기는 하지만, 전시회의 성격이 좋고 공공성도 충분하니까 홍보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상우 : 고맙습니다. 그럼 구청 일정에 맞추어 다음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강당을 빌리겠습니다.

구 공무원 : 제안하신 전시회는 우리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방식을 더 논의해 봅시다.

상우 : 저도 동아리 사진 전시회를 열 공간이 마련되어 기쁩니다. 구에서 홍보를 도와주신다면 성공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상명고등학교 (서울)

1. 밑줄에 제시된 협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상우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대상을 학교 밖까지 확장하기 위해 구청 강당을 빌리려 한다.
- 구 공무원은 전시회가 고등학생에게 힘을 주는 행사이므로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
- 구 공무원은 행사 일정과 운영 시간 규정을 이유로 상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 상우는 전시회 기간이 축소되는 것이 아쉽지만 날짜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
- 구 공무원은 처음에는 전시회 홍보에 의문을 가졌지만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정 단계

상우 :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등학생인 저희가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할 거예요.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자는 의미도 있지요.

구 공무원 :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자는 내용만으로는 전시회의 공공성이 좀 약합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좀 더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도 있을 텐데요.

상우 : 네, 있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학교 사진 동아리 누리집에 올리면 한 장당 일정 금액이 모금됩니다. 그렇게 모금된 돈은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이 정도면 전시회의 공공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공무원 : 동아리 누리집에 사진을 올리면 후원금이 모금되고 그것으로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한다니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사진 전시회를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상우 : 네, 정말 잘 되었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전시회를 열 예정인데 그때 강당을 빌릴 수 있나요?

구 공무원 : 아, 그건 곤란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라 강당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만 강당을 사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강당을 운영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 구에서는 다른 주민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개인 및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상우 : 그렇군요. 저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해서, 평일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3시간씩 강당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시를 하기에 2일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구 공무원 : 음, 그렇다면 다음다음 주에 전시회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는 강당을 사용하는 행사가 없고, 아직 다른 단체에서 강당을 빌려 달라고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이 강당을 빌려 쓰는 시간이 짧기도 하니, 이를 고려해서 3일간 강당을 쓸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상우 : 전시회 날짜를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전시회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줄면 관람객이 적어질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해 주실 수 있나요?

구 공무원 : 전시회를 홍보해 달라고요?

상우 : 네, 전시회를 여는 3일 동안 최대한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싶은데, 학생들이 저희로서는 지역 주민에게 전시회를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요.

구 공무원 : 저희도 업무로 바쁘기는 하지만, 전시회의

성격이 좋고 공공성도 충분하니까 홍보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상우 : 고맙습니다. 그럼 구청 일정에 맞추어 다음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강당을 빌리겠습니다.

해결 단계

구 공무원 : 제안하신 전시회는 우리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방식을 더 논의해 봅시다.

상우 : 저도 동아리 사진 전시회를 열 공간이 마련되어 기쁩니다. 구에서 홍보를 도와주신다면 성공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창동고등학교 (서울)

4. 다음 중 윗글에 나타난 협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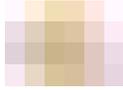
- <보기>
- ㉠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 3자의 조정이 나타난다.
 - ㉡ 참여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간다.
 - ㉢ 참여자들은 상호경쟁적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 ㉣ 많은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여 견주어 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협동 과정이 나타난다.
 - ㉤ 참여자 양측은 상호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도 타결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이다.

- ㉠, ㉡
- ㉡, ㉢
- ㉢, ㉣
- ㉣, ㉤, ㉥

창동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나타난 '구 공무원'의 협상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는지 지속적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강당 사용의 과거 부적합 사례를 인용하며 상대방 제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구청 강당 사용의 구체적 조건에 비추어 상대방의 제의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상대방 대안을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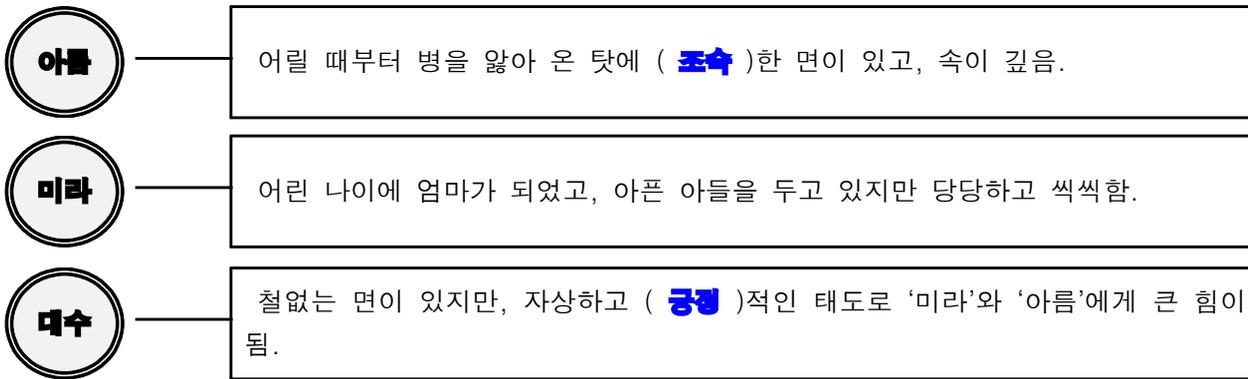
제재 개관

갈래	시나리오
성격	감성적, 서정적
배경	•시간적: 2010년대 •공간적: 서울
제지	조로증을 앓고 있는 16세 소년의 삶과 사랑.
주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보듬는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사랑.
특징	•난치병을 앓고 있는 소년의 삶을 담담하고 유쾌한 시각으로 그려 냄. •인물이 상상하는 장면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형상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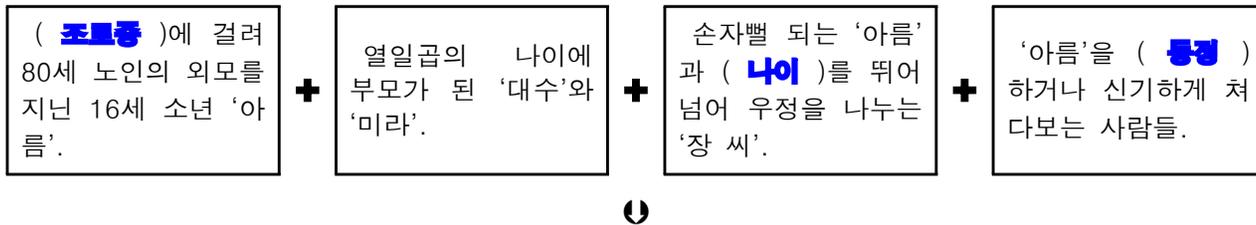


핵심 정리

1. 등장인물의 성격



2. 이 시나리오의 사회-문화적 가치



'아름'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의 가치를 계단게 함.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S# 11. 한강 둔치 / 밤

매점 앞. / 맥주가 담긴 봉지를 들고 매점을 나오는 대수와 아름이.

아름 : 아빠, 나 화장실.

(㉠) 간이 화장실 옆. / 대수와 조금 떨어진 간이 화장실 옆의 으스스한 공간. / 불량스러워 보이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아름이.

불량한 남학생1 : 너 진짜 애야? 할배 아니고?
 불량한 여학생2 : (동물원의 동물을 보듯이) 우아! 진짜 신기하다.
 불량한 남학생2 : (아름이의 얼굴을 살피며 히죽히죽 웃으면서) 외계인이야, 뭐야?
 불량한 여학생1 : 아,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데……. (㉡) 아, 몰라. 암튼 막 빨리 늙어서 죽는 병이래. / 아름 : 비켜요.

남학생이 아름이의 모자를 낚아채 벗긴다. 아름이의 등등등성한 머리가 드러나자 놀라는 아이들.

불량한 여학생1 : 대박!
 불량한 남학생1 :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며) 뭐야, 이거?
 불량한 남학생2 : (㉢) 야, 이거 옳는 병 아냐? 아이씨.

(㉣).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두려번거리는 대수. 간이 화장실 옆.

대수 : 아름아! / 아름 : (대수를 보며) 아빠!

‘아빠야?’, ‘야, 아빠래.’ 젊은 아빠인 대수의 모습을 보자 상황이 우습다는 듯, 키득거리는 아이들.

대수 : 괜찮아? 너 모자……. (말하면서 모자를 집어 아름이와 자리를 뜨는데.)
 불량한 남학생1 : (끝까지 ㉤이기죽거리면서) 어이쿠, ㉤ 효자 아저씨. 아버님 모시고 밤마실 나오셨나 봐요?
 불량한 남학생2 :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서 골룸이 태어나냐.
 대수 : (㉥)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결국 불량한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마는 대수.

손을 뿌리치고 걸렁거리며 대수를 에워싸는 불량한 학생들.

대수가 아름이를 한쪽으로 안전하게 비켜 세우고는, 아름이를 향해 씩 웃으며 윙크를 하더니 마치 이소룡처럼 자세를 잡는다.

일 대 사의 열세에도 민첩하고 멋지게 싸워 나가는 대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있게 싸우며 공중에서 1회전 반을 돌아 540도 발차기! 멋지게 악당을 물리치는 대수.

하지만 이것은 ㉦아름이의 환상이었다.

S# 43. 병원 정원 / 오후

병원 정원에서 촬영이 진행 중이다.

미라가 촬영을 지켜보고 있고, 그 뒤로 어느샌가 슬그머니 나타난 장 씨. 그런데 장 씨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다. 한눈에도 평소보다 멋을 낸 느낌.

김 작가 : (승찬이의 큐 신호를 보고) 아름이는 혹시 누굴 좋아한 적 있어?
 아름 : 좋아하는 사람이요? 많죠. 우리 엄마랑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아! 우리 옆집 짱가 할아버지도 좋아해요.

순간 ㉧우쫄해지는 장 씨.

아름 : (갑자기 사라들린 듯이) 콜록콜록. / 미라 : 아름아, 괜찮아?

옆에서 지켜보던 미라가 달려든다. 자연스럽게 촬영이 중단된다. 멈출 줄 모르는 아름이의 기침.

(㉨). 촬영 팀, 촬영을 접고 있다.

이야기 중인 승찬이와 미라, 그리고 그 사이로 어슬렁거리는 장 씨.

승찬 : 오늘은 아무래도 힘들겠지?
 미라 : (㉩) 야! 넌 어떻게……. 보고도 몰라?
 승찬 : 그치, 뭐 어쩔 수 없지. (주변을 맴도는 장 씨를 보며) 아! 아름이 옆집 할아버지시죠? 혹시 저희랑 인터뷰 좀…….
 장 씨 : 아, 뭐……. 나요? 그럼 어디 앉을까요?

(㉪). 장 씨 인터뷰를 시도하는 촬영 팀. 장 씨, 바짝 얼어 있다.

승찬 : 자, 할아버지. 준비되셨죠? 한번 가 볼게요. (촬영 감독에게 신호 주며) 큐! / 김 작가 : 아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장 씨 : (㉠) 어, 이아름 군은, 아니지, 우리 한아름 군은…….

승찬 : 컷! (장 씨 보며) 할아버지,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카메라 없는 데서 우리 작가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장 씨,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얼어있다. 카메라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장 씨. ‘컷! 엔지!’, ‘컷! 엔지!’, 이어지는 장 씨의 엔지.

장 씨 : 어, 우리 한아름, 예고……. / 장 씨 : 아름이 이놈 자식은요?

(㉡). 지친 촬영 팀. 승찬이도 이젠 거의 포기한 얼굴이다.

승찬 : 한 번만 더. 자, 큐! / 김 작가 : 아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장 씨 : (드디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본다.) 아름이는…… 친구요, 내 친구.

대답하는 장 씨의 얼굴에 진심이 묻어난다.

(다) S# 52. (㉢) [서하와의 교신]

(㉣).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떠 있는 하얀 구름.

아름 : ㉠(소리)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을 볼 때…….

(㉤). 트램펄린을 타는 아이들의 즐거운 까르르, 웃음 소리.

아름 : (소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져.

(㉥). 햇살 속, 나란히 누워 베갯잇 향기를 맡는 미라와 아름이.

아름 : (소리) 맑은 날 오후, 엄마와 함께 햇빛을 머금은 포근한 빨래 냄새를 맡을 때에도.

(㉦). 동네 구멍가게 앞. 텔레비전 속 연속극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아저씨.

아름 : (소리) 무뚝뚝한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며 우는 걸 보고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중략)

아름 : (소리) 저녁 무렵,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를 부르는 할머니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도……. 여름날 엄마가 아빠 등목을 해 주며 찬물을 끼얹는 걸 볼 때에도……. 나는 살고 싶어져. 아빠와 함께 초승달이 뜬 초저녁 초롱초롱한 금성을 보면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볼 때에도……. 살고 싶어지고는 해. 서하야, 너는 어때?

상명고등학교 (서울)

1.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 시간 공간적 배경 표현이 비교적 자유롭다.
- 장면을 단위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대사와 지시문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과거와 현재가 적절히 교차된다.
-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적은 편이다.

상명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아름’이는 특별한 경험보다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 ‘장씨’는 천진난만한 아름이와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진정한 친구 사이이다.
- ‘불량한 학생들’은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외모의 소유자는 모두 비아냥거린다.
- ‘대수’는 무술 실력이 상당하여 아름이 앞에서 불량 청소년들을 혼내준다.
- ‘승찬’은 방송 촬영보다는 아름이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명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을 감상한 독자들의 반응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은 : 윗글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게 되네요 .
- 수진 : 맞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를 진지하게 성찰하며 우리 사회의 전망까지도 고민하게 돼요.
- 지연 : 윗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 보운 : 저는 제 관심에서 조금 다르게 비판하면서 읽게 되네요. 주변의 아픈 아이를 다 괴롭히는 건 아니니까요.
- 미현 : 저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 공감해요. 작가의 생각에 100%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명고등학교 (서울)

4. ㉠~㉤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짓궂게 빈정거리면서’의 뜻으로 불량학생들의 말하기 태도를 나타낸다.
- ㉡ : 불량학생들이, 대수와 산책 나온 아름이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 ㉢ : 대수가 불량학생을 물리치기를 바라는 아름이의 소망이 나타난다.
- ㉣ : 의기양양하여 뽐낸다는 뜻으로 장씨는 아름이와 친구인 것을 뽐낸다.
- ㉤ : 독백의 효과를 살려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상명고등학교 (서울)

5. ㉠~㉤에 들어갈 지시문 중 내용상 어색한 것은?

- ㉠ :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 ㉡ : 아름이의 모자를 던지며
- ㉢ : 가다가 멈춰 돌아보며
- ㉣ : 쏘아보며
- ㉤ : 카메라를 보며

상명고등학교 (서울)

6. 밑줄 친 ㉠-㉤에 들어갈 시나리오 용어 중 다른 하나는?

- ㉠
- ㉡
- ㉢
- ㉣
- ㉤

상명고등학교 (서울)

7. ㉠, ㉡에 들어갈 시나리오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외래어 표기법에 유의할 것)

<보기>

㉠ 따로 촬영된 장면을 떼어 붙이면서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붙이는 기법

㉡ 일정한 화면크기와 카메라 촬영 각도로 구성된 낱장의 장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S# 8. 대수의 택시 안-밖/오후

밝은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택시 안 풍경.
손님을 발견한 대수, 그쪽으로 차를 세운다.
선한 인상의 평범한 30대 부부, 임신을 한 여자는 배가 많이 불러 있다.
차를 세운 대수가 보조석 창문을 내린다.

남편 : ○ 병원 사거리요.
대수 : 예. 근데 죄송한데, 사정상 저희 아들하고 오늘 같이 좀 다녀야 해서 그러는데…….
남편 : 어? 저 혹시, 지난주에 방송 나왔던?
부인 : 어! (반가워하며) 어어…….
남편 : 맞죠?

경우고등학교 (경북)

8. 이 글의 갈래가 시나리오임을 참고할 때, ㉠의 기능을 3가지로 쓰시오. (㉠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S# 15. 병원 진료실/오후
 파리한 얼굴의 미라. 마주 앉은 주치의를 보고 있다.

주치의 : (모니터를 돌려 주며) 여기 있는 이 점이, 뇌혈관이 살짝 터졌던 흔적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잘못하면 애 중풍 걸릴 뻔했어요.

미라 : 저……. 그게 모르고 지날 수도 있는 건가요?

주치의 : (아름이를 보며) 두통이 상당했을 텐데? 머리 아프단 소리 안 해요?

미라 : (답답하고 속상해하며) 아름아, 아픈 데 있으면 얘기하랬잖아.

아름 : (주눅 든 목소리로) 내가 언제 안 아픈 적 있었어?

미라 : (한숨을 쉰다.) …….

주치의 : (화가 난 목소리로 미라에게)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잘못하면 이거, 올해도 못 넘겨요.

미라 : (아름이의 눈치를 보며) 선생님!

주치의 : (진정하고 아름이를 보며) 아름아.

아름 : 예?

주치의 : 잠깐만 나가 있을래?

아름 :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

미라 : 아름아! 나가 있어.

아름이 , 미라의 얼굴을 보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9. (가)에서 알 수 있는 '아름'의 성격을 두 가지 쓰시오.

<조건>

(가)에 나타난 '아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모습도 함께 제시하여 한 문장으로 쓸 것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④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8. 대수의 택시 안-밤/오후
 밝은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택시 안 풍경.
 손님을 발견한 대수, 그쪽으로 차를 세운다.
 선한 인상의 평범한 30대 부부, 임신을 한 여자는 배가 많이 불러 있다.
 차를 세운 대수가 보조석 창문을 내린다.

남편 : ○ 병원 사거리요.

대수 : 예. 근데 죄송한데, 사정상 저희 아들하고 오늘 같이 좀 다녀야 해서 그러는데…….

남편 : 어? 저 혹시, 지난주에 방송 나왔던?

부인 : 어! (반가워하며) 어어…….

남편 : 맞죠?

Cut to. 길가. 한 젊은 여자가 손을 흔들자, 여자 앞으로 다가와 서는 대수의 택시.
 휴대 전화로 통화를 하며 택시 뒷자석에 타는 여자. '가로수 길이요.' 하고는 다시 통화를 계속한다.
 '저, 손님 양해 좀 드려야 할…….'이라고 말하며 대수가 아름이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만 씬 없이 통화하는 여자는 눈길도 안 준다. 잠시 후 통화가 끝난 여자, 앞 좌석의 아름이를 발견하고는 '썩!' 하며 비명을 지른다.

대수 : (돌아보며) 아, 손님이 통화 중이셔서 먼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정상 저희 아들이랑 같이 좀 다녀야 하는데, 애가 몸이 좀 불편…….

여자 : (못 볼 걸 본 듯 얼굴이 일그러지며) 아저씨. 뭐예요, 진짜! 택시 하면서 진짜!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짜증 나 죽겠어!

여자, 차에서 내려 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탄다.

Cut to. 교복을 입은 아름이 또래의 아이들 셋이 택시 뒷자석에 타고 있다.
 여학생 1이 아름이를 알아본 표정. 여학생 2의 귀에 대고 속닥속닥. '그래?' 하며 반응하는 여학생 2
 여학생 3은 아름이를 힐끔거리며 그새 스마트폰으로 아름이의 정보를 검색한다.

여학생2 : (거침없이) 저기, 인증 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아름이 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뒤에서 자세를 취하는 학생들.

밝은 분위기, 구김살 없는 아이들의 모습에 왠지 주눅이 드는 아름이.

Cut to. 학원가 앞에서 내리는 아이들.

여학생3 : 고맙습니다.

여학생1 : (내리며 아름이에게) 안녕. 빨리 건강해져.

아름 : (목례하며) 아, 네…….

대수 : 고마워요. 공부들 열심히 하고.

삼삼오오 모여 학원으로 들어가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는 아름이의 눈에 부러움이 깃들었다.

대수, 그런 아름이를 본다.

Cut to. 아름이, 창밖을 내다보며 거리 풍경을 구경 중.

아름 : 그러니까 아빠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서 체고를 갔던 거지?

대수 : 아니.

아름 : (의아해하며) 예? 그럼, 아빠 뭐가 되고 싶었는데?

대수 : 음……. 뭐가 돼야 할지 잘 몰라서 갔던 거지. 사실 태권도하면서 좋았던 것도 도복밖에 없었어. (웃는다.)

아름 : 뭘 잘하면서 동시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대수 : 그럼.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아빠 친구 놈 하나는 전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는데, 수학을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아름 : 아빠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요? 에이, 설마.

대수 : (차를 세우며 진지하게) 야, 아들. 네가 나보다 좀 더 늙었다고 해서 아빠를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더군다나 체고 나온 아빠를. 우린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다고.

아름 : 예예예. (웃는다.)

S# 10. 한강 둔치/밤

“짠, 우리 세 식구를 위하여!” 건배하고 부딪히는 세 사람의 손. 돛자리 위엔 먹음직스러운 통닭이 놓여 있다.

대수는 콜라를, 미라는 캔 맥주를, 아름이는 빨대로 요구르트를 마신다.

미라, 캔 맥주를 단숨에 들이킨다.

놀라서 미라를 보는 대수와 아름이.

미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그때 어디선가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미라의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살짝 날린다.

미라 : (바람을 맞으며 살짝 웃음을 보이면서) 아, 기분 좋다. 난 바람 부는 날이 왜 이렇게 좋지?

대수 : 어? 나도 그런데!

아름 :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투로) 바람이 불면 공기 중에 음이온이 많이 발생해서 괜히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래요.

대수 : 오오!

미라 : (아름이의 볼을 어루만지면서) 어휴, 똑똑해. 누굴 닮았을까, 우리 아들!

대수 : (당연하다는 듯이) 누굴 닮긴 날 닮았지.

미라 : (콧방귀를 끼며) 치.

대수 : 왜? 맞잖아. 팔빙수 좋아하는 거, 콩밥 싫어하는 거, 발가락 긴 거, 유머 감각 있고 또 속은 얼마나 깊어.

미라 : 치, 좋은 건 다 지 닮았대. (아름이의 눈을 가리키며) 어, 눈 예쁘고 똑똑한 건 날 닮았지.

대수 : 눈도 나랑 똑같잖아!

미라 : 아, 시끄럽고, 가서 맥주나 더 사 온나!

대수 : (아름이에게) 같이 갈까?

웃으며 일어나는 대수와 아름이.

S# 11. 한강 둔치 / 밤

매점 앞.

맥주가 담긴 봉지를 들고 매점을 나오는 대수와 아름이.

아름 : 아빠, 나 화장실.

Cut to. 간이 화장실 옆.

대수와 조금 떨어진 간이 화장실 옆의 으스스한 공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아름이. 남학생 넷, 여학생 둘.

불량한 남학생 1 : 너 진짜 애야? 할배 아니고?

불량한 여학생 2 : (동물원의 동물을 보듯이) 우아! 진짜 신기하다.

불량한 남학생 2 : (아름이의 얼굴을 살피며 히죽히죽 웃으면서) 외계인이야, 뭐야?

불량한 여학생 1 : 아,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데…….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아, 몰라. 암튼 막 빨리 늙어서 죽는 병이래.

아름 : 비켜요.

남학생이 아름이의 모자를 낚아채 벗긴다. 아름이의 등 성듬성한 머리가 드러나자 놀라는 아이들.

불량한 여학생 1 : 대박!

불량한 남학생 1 : (막상 보니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며) 뭐야, 이거?

불량한 남학생 2 : (아름이의 모자를 던지며) 야, 이거 혹시 옹는 병 아냐? 아이씨.

Insert.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두리번거리는 대수. 간이 확장실 옆.

대수 : 아름아!

아름 : (대수를 보며) 아빠!

‘아빠야?’, ‘야, 아빠래.’ 젊은 아빠인 대수의 모습을 보자 상황이 우습다는 듯, 키득거리는 아이들.

대수 : 괜찮아? 너 모자……. (말하면서 모자를 집어 아름이와 자리를 뜨는데.)

불량한 남학생 1 : (끝까지 이기죽거리면서) 어이쿠, 효자 아저씨. 아버님 모시고 밤 마실 나오셨나 봐요?

불량한 남학생 2 :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서 골룸이 태어나냐.

대수 : (가다가 멈춰, 돌아보며)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결국 불량한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마는 대수.

손을 뿌리치고 쫓겨가며 대수를 에워싸는 불량한 학생들.

대수가 아름이를 한쪽이를 안전하게 비켜 세우고는, 아름이를 향해 씩 웃으며 윈크를 하더니 마치 이소룡처럼 자세를 잡는다.

일 대 사의 열세에도 민첩하고 멋지게 싸워나가는 대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있게 싸우며 공중에서 1

회전 반을 돌아 540도 발차기! 멋지게 악당을 물리치는 대수.

하지만 이것은 아름이의 환상이었다.

다시 현실.

현실의 상황은 아름이의 환상과 전혀 다르다.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맞다가 반격을 시작하는 대수. 온 힘을 다해 학생들을 뿌리치고는 있는 힘껏 발차기를 날린다.

하지만 대수의 발에 맞은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말리려 오던 경찰.

이내 뺨어 버린 경찰. 당황한 대수. 놀란 아름이.

창동고등학교 (서울)

10. 위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적다.
- 장면의 전환이 비교적 자유롭다.
- 장면 단위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
- 주로 대화와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11.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해 보면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독자는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가치를 생각해 보고, 현실에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다. 즉, 작품 속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것이다.

- 명현 :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모든 사람의 삶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 현정 :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보다는 경제적 지원책이 더 필요한 것 같아.
- 유민 : 장애인을 향한 조심성 없는 행동과 시선이 그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
- 병국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적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어.
- 상민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호기심이 우리의 평소 행동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어.

핵심 정리

1.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 내용 정리

	중심 내용	근거 및 표현 방법
① 문단	기존의 학설에 도전하는 일은 이단자로 몰릴 수도 있는 어려운 일임.	‘갈릴레이’의 지동설이 부정당했던 사례를 제시함.
②~③ 문단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과학의 발전을 늦출 수 있음.	‘존 스노’가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밝힌 사례를 제시함.
④~⑤ 문단	과학과 마찬가지로 사회나 조직도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	과학 분야의 사례를 조직과 사회 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함.
⑥ 문단	이단자를 (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	영국의 시인 ‘밀턴’의 말을 인용함.

2. 설득하는 글 쓰기의 일반적인 과정

- 소재 선정** 글에서 다룰 소재를 구체적으로 선정함.
- ↓
- 맥락 분석**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이 실릴 (**매체**)를 분석함.
- ① **자료 수집과 근거 마련**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함.
 - 수집한 자료가 타당성, 객관성, 사실성,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지,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적절성을 점검하여 근거를 마련함.
- ① **개요 작성과 글 쓰기** ‘서론-본론-결론’의 일반적인 짜임을 참고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개요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글을 씀.
- ① **고쳐쓰기**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씀.

3. 쓰기 맥락의 이해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라 고등학교의 상우는 교내 사진 동아리의 운영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름다운 웃음’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기로 한 상우네 동아리는 전시회 장소를 찾던 중, OO 구청에서 강당을 무료로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우는 강당을 빌리기 위해 직접 OO 구청을 찾아가 OO구 공무원과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상우 :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 고등학교 일학년 박상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름다운 웃음’이라는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전시회를 할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구 공무원 : 학생 동아리라면 학교에서든 전시회를 열 수 있을 텐데 굳이 구청 강당을 전시회 장소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우 : 이번 전시회는 우리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장소로 학교보다는 구청 강당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 공무원 :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강당을 토론회나 교육 행사, 주민 모임 등의 주민 공동체 활동 장소로 빌려 드립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강당을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구청이 가진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먼저 그 사진 전시회가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강당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우 :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등학생인 저희가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할 거예요.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자는 의미도 있지요.

구 공무원 :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자는 내용만으로는 전시회의 공공성이 좀 약합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좀 더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도 있을 텐데요.

상우 : 네, 있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학교 사진 동아리 누리집에 올리면 한 장당 일정 금액이 모금됩니다. 그렇게 모금된 돈은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이 정도면 전시회의 공공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공무원 : 동아리 누리집에 사진을 올리면 후원금이 모금되고 그것으로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한다니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사진 전시회를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상우 : 네, 정말 잘 되었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전시회를 열 예정인데 그때 강당을 빌릴 수 있나요?

구 공무원 : 아, 그건 곤란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 주

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라 강당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만 강당을 사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강당을 운영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 구에서는 다른 주민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개인 및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상우 : 그렇군요. 저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해서, 평일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3시간씩 강당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시를 하기에 2일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구 공무원 : 음, 그렇다면 다음다음 주에 전시회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는 강당을 사용하는 행사가 없고, 아직 다른 단체에서 강당을 빌려 달라고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이 강당을 빌려 쓰는 시간이 짧기도 하니, 이를 고려해서 3일간 강당을 쓸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상우 : 전시회 날짜를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전시회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줄면 관람객이 적어질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해 주실 수 있나요?

구 공무원 : 전시회를 홍보해 달라고요?

상우 : 네, 전시회를 여는 3일 동안 최대한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싶은데, 학생들이 저희로서는 지역 주민에게 전시회를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요.

구 공무원 : 저희도 업무로 바쁘기는 하지만, 전시회의 성격이 좋고 공공성도 충분하니까 홍보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상우 : 고맙습니다. 그럼 구청 일정에 맞추어 다음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강당을 빌리겠습니다.

구 공무원 : 제안하신 전시회는 우리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방식을 더 논의해 봅시다.

상우 : 저도 동아리 사진 전시회를 열 공간이 마련되어 기쁩니다. 구에서 홍보를 도와주신다면 성공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 과학사를 들춰 보면 기존의 학문 체계에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이다.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을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옥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갈릴레이가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지 않고 계속 지동설을 주장했더라면 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천동설을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갈릴레이는 진리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저 불온한 이단자에 불과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가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 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예외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확조와 브로드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장에서 나온 세균이 정확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가의 상수도에 유입되었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무모한 듯 보였던 존 스노의 연구는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설명하여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만약 존 스노가 오염된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기존의 지배적 통념에 갇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을지 모를 일이다.

새로운 생각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나 조직의 발전을 해치는 경우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은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고 구성원이 사회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나 학설에 도전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불합리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와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밝힌 존 스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의 도약은 대개 이단적 발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에 발전과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조직과 사회도 이와 같다. 사회 혁신의 동력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충심 어린 이단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피운 이탈리아의 영광이 순식간에 몰락한 결정적 원인은 바로 갈릴레이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든 탓이라고 했다.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충고이다.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감싸고 그들을 활용하라. 그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을 명심하자.

- 유정식, 「샘터」

수내고등학교 (경기)

1. (가)와 (나)에 공통으로 사용된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와 (나)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을 미리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가)와 (나)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가)와 (나)에서는 설득 대상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통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가)와 (나)에서는 설득 대상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 (가)와 (나)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을 통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수내고등학교 (경기)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구청 공무원은 협상을 명확하게 하려고 상우에게 구청 강당이 필요한 이유를 묻고 있다.
- 상우는 구청 공무원이 요구하는 공공성 요건에 대한 대안이 없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다.
- 구청 공무원은 강당 대여 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면 대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상우와 구청 공무원의 협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한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 상우는 최초 계획대로 전시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며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과학사를 들춰 보면 기존의 학문 체계에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이다.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은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갈릴레이가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지 않고 계속 지동설을 주장했더라면 그는 단두대이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천동설을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갈릴레이는 진리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저 불온한 이단자에 불과했다.

(나)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가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 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다) (㉔)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예외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하였다. (㉕),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와 브로드 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장에서 나온 세균이 정화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 가의 상수동에 유입되었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무모한 듯 보였던 존 스노의 연구는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설명하여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㉖) 존 스노가 오염된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기존의 지배적 통념에 갇혀 있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을지 모를 일이다.

(라) 새로운 생각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과학에 서뿐만 아니라 사회나 조직의 발전을 해치는 경우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은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고 구성원이 사회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나 학설에 도전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불합리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마)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와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밝힌 존 스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의 도약은 대개 이단적 발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에 발전과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조직과 사회도 이와 같다. 사회 혁신의 동력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충심 어린 이단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바) 영국의 시인 밀턴은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피운 이탈리아의 영광이 순식간에 몰락한 결정적 원인은 바로 갈릴레이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든 탓이라고 했다.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충고이다.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감싸고 그들을 활용하라. 그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을 명심하자.

상명고등학교 (서울)

8. (가)~(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는 독자에게 익숙한 사례를 제시하여 앞으로 전개할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 (나)와 (다)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과학의 발전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라)는 과학 분야의 사례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마)는 앞에서 제시한 예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바)는 인용을 바탕으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명고등학교 (서울)

9. 문맥상 (다)의 ㉔~㉖에 들어갈 접속어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㉔ | ㉕ | ㉖ |
| ■ 그러나 | 그러나 | 그런데 | 결코 |
| ■ 그리고 | 그리고 | 그 결과 | 만약 |
| ■ 그러나 | 그러나 | 그 결과 | 결코 |
| ■ 그리고 | 그리고 | 그런데 | 결코 |
| ■ 그러나 | 그러나 | 그 결과 | 만약 |

상명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을 바탕으로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2음절로 쓰시오.

<p><주제>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문화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p>		<p>< ㉠ > 독자를 설득하기 위함</p>
	<p>쓰기 (㉠)</p>	
<p>< ㉡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의 기고란</p>		<p><예상 독자>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지니지 않은 일반적인 독자</p>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과학사를 들춰 보면 기존의 학문 체계에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이다.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을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갈릴레이가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지 않고 계속 지동설을 주장했더라면 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천동설을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갈릴레이는 진리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저 불온한 이단자에 불과했다.

(나)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가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 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다)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예외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와 브로드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

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장에서 나온 세균이 정화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 가의 상수도에 유입되었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무모한 듯 보였던 존 스노의 연구는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설명하여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만약 존 스노가 오염된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기존의 지배적 통념에 갇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을지 모를 일이다.

(라) 새로운 생각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나 조직의 발전을 해치는 경우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은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고 구성원이 사회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나 학설에 도전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불합리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마)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와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밝힌 존 스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의 도약은 대개 이단적 발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에 발전과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조직과 사회도 이와 같다. 사회 혁신의 동력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충심 어린 이단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바) 영국의 시인 밀턴은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피운 이탈리아의 영광이 순식간에 몰락한 결정적 원인은 바로 갈릴레이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든 탓이라고 했다.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충고이다.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감싸고 그들을 활용하라. 그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을 명심하자.

- 유정식,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

선사고등학교 (서울)

11. 윗글의 저자가 고려한 글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 실재했던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 독자를 설득해야겠군.
- 결말 부분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주장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군.
- 독자에게 익숙한 인물을 사례로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해야겠군.
- 새로운 생각이나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을 '이단자'에 비유해 독자의 흥미를 환기할 수 있겠어.
-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의 순기능을 강조해야겠어.

④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과학사를 들춰 보면 기존의 학문 체계에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이다.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을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옥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갈릴레이가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지 않고 계속 지동설을 주장했다라면 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천동설을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갈릴레이는 진리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저 불온한 이단자에 불과했다.

②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가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 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③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예외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확조와 브로드 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장에서 나온 세균이 정확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 가의 상수도에 감염되었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무모한 듯 보였던 존 스노의 연구는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설명하여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만약 존 스노가 오염된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기존의 지배적 통념에 갇혀 있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을지 모를 일이다.

④ 새로운 생각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나 조직의 발전을 해치는 경우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은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고 구성원이 사회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나 학설에 도전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불합리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⑤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와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밝힌 존 스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의 도약은 대개 이단적 발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에 발전과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조

직과 사회도 이와 같다. 사회 혁신의 동력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충심 어린 이단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⑥ 영국의 시인 밀턴은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피운 이탈리아의 영광이 순식간에 몰락한 결정적 원인은 바로 갈릴레이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든 탓이라고 했다.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충고이다.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감싸고 그들을 활용하라. 그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을 명심하자.

경우고등학교 (경북)

16.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성격을 띤다.
-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새로 글이 전개된다.
- 글쓴이의 주장을 전달하여 독자의 의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 문제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을 소개하고 두 입장을 절충하는 글이다.
- 주장이 뚜렷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1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물음과 대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주제를 강조하고 위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실재했던 과학적 사례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지니지 않은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글의 첫 부분에 익숙한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열거의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특정 용어의 어원과 함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 글쓴이의 특수한 경험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일반인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으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친숙한 사례를 제시하여 앞으로 전개할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19. ㉡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존 학설의 내용을 보충하는 의견
-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
- 사회의 혁신에 대해 조언하는 말
- 기존 체제를 거스르는 이단적 발상
- 사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규칙

- 끝 -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핵심 정리

1. 높임 표현

- 화자가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

상대 높임법	(형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주체 높임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객체 높임법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

2. 시간 표현

-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

- 시제: 사건이 발생한 시점(사건시)이 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발화시)보다 이전인지 이후인지, 아니면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국어의 문법 요소.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
현재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미래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

•동작상: 동작 내부의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

진행상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완료상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될 때.

3. 인용 표현

- 다른 데에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문장에 넣어서 전달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

() 용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인용.
간접 인용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의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인용.

4. 피동 표현

-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

능동문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을 하는 문장.
피동문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문장.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1. 다음 설명 중 올바르게 서술한 것을 고르면?

- 직접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 표현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주며 격식 있는 문체가 된다.
-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겠-’은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철수가 만든 장난감을 강아지가 부수어 버렸다.’에서 ‘만든’의 ‘-ㄴ’은 현재시제를 나타내고 ‘버렸다’의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피동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다.
-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이중피동 표현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2. 잘못된 표현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은?

-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대.
- 공무원 시험 경쟁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 내가 상을 탔다니 믿겨지지 않아.
- 그 사건은 이미 잊혀진 일이 되었어요.
-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바탕으로 능동과 피동 표현의 효과를 탐구한 것이다. 올바르게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

김기자 :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여섯 시쯤 ○○구 ○○동의 한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①**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세 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이 중 주차장 일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불별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복과 학용품 등 신학기 물품의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교복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4% 가량 올랐으며, 운동화는 9%, 가방은 6.5%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③**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①은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②를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로 바꾸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③은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에 쓰인다.
- ②는 내용의 주관성을 높일 수 있고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다.
- ③은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대전대신등학교 (대전)

4. 다음 중 동작상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상 :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
- ② 진행상 : 지금쯤 고구마가 잘 익어 있겠다
- ③ 진행상 : 기차가 그때 막 들어오고 있었다
- ④ 완료상 : 영우가 빵을 다 먹어 버렸다
- ⑤ 완료상 : 승주는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이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나 조사가 아닌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예 주무시다)
 ㉡ 객체를 높이는 용언(예 여쭙다)
 ㉢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체언(예 사장님)
 ㉣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체언(예 댁)

- ㉠, ㉣이 모두 쓰인 문장 : 아버님께서 아직 음식을 드신다.
-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어머니를 설득하여 치아를 교정해 드렸다.
- ㉡, ㉣이 모두 쓰인 문장 : 동생은 사무실로 가서 그분을 직접 찾아뵈었다.
-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언니는 할아버지께 성함을 여쭙어 보았다.
- ㉢, ㉣이 모두 쓰인 문장 : 나는 부모님의 연세를 정확히 기억한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우리는 내일 프랑스 여행을 간다.
 ㉡ 그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었다.
 ㉢ 아까 출발한 아버지께서는 벌써 집에 가셨겠구나.
 ㉣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니 이번 농사는 다 지었다.
 ㉤ 어제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참 많더라.

- ㉠ :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ㄴ'이 미래의 사건을 표현할 때에 쓰이기도 한다.
- ㉡ : '-었었-'은 과거의 상황이 현재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 : '-었-'과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겠-'이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다.
- ㉣ : '-었-'은 발화사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과 관련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 '-더-'는 과거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떠올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아버지 : 지수가 책상 정리를 ㉠하고 있구나.
 지수 : 네, 바자회에 기부할 물건을 다 ㉡내놓았어요.
 아버지 : 잘 했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 ㉢구입한 책은 어디 있지?
 지수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아버지 : 그렇구나.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지수 : 네, 조금 후에 저랑 같이 바자회에 ㉤갈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 : '-ㄴ'은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대전대신고등학교 (대전)

8. 문법 요소의 오용 사례를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옷이 잘 입어지실(㉠ 이 옷을 잘 입으실) 거예요
- ② 텔레비전에 비치는(㉡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 ③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예상됩니다.)
- ④ 이것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작된) 제품입니다
- ⑤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사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컨대, ‘안다’에 접미사 ‘-기-’가 결합한 ‘안기다’는 ㉠피동사로도 쓰이고, ㉡사동사로도 쓰인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 캠핑 중에 모기에게 다리를 물렸다.
 ㉡ : 엄마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우유병을 물렸다.

- ㉠ : 야외에서 직접 경관을 보니 그림의 구도가 쉽게 잡혔다.
- ㉡ : 병이 낫자마자 아이에게 붓을 잡혔다.
- ㉠ :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 ㉡ : 누나가 동생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 : 책상 위의 원고들이 바람에 날렸다.
- ㉡ : 꼬마들이 옥상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 ㉠ : 친구가 새 가방을 내게 보였다.
- ㉡ : 투병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가 보였다.
- ㉠ : 칭얼대는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기를 업혔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10. <보기>의 ㉠과 ㉡에서 밑줄 친 말의 의미를 비교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일반적으로 ‘-았-/-었-’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았-/-었-’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졸업 후 10년 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뻐다.
 ㉡ 발목을 다쳤더니 너는 수학여행은 다 갔다.

<조건>

- ‘㉠의 ‘-었-’은 ~을(를) 의미함’의 형식으로 쓸 것.
- ‘㉡의 ‘-았-’은 ~처럼 표현함.’의 형식으로 쓸 것.

석관고등학교 (서울)

11. 높임 표현과 상대 높임 체계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 하십시오체
- 아저씨, 강아지가 정말 귀여우세요. - 격식체
- 교장선생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 하오체
- 정연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 - 하계체
- 네, 고객님. 이 제품 정말 잘 나가세요. - 해체

석관고등학교 (서울)

12. 밑줄 친 부분에서 높임 표현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 현우가 할머니를 뵈러 갔다.
- 아버지께서 파전을 맛있게 드신다.
- 예지가 선생님께 수학문제를 여쭙었다.
- 승찬이가 과일을 깎아서 어머니께 드렸다.
- 경호가 할아버지를 모시러 정류장으로 나갔다.

석관고등학교 (서울)

13. 밑줄 친 부분에서 시제가 다른 하나는?

-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 민기가 운동장을 달린다.
-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 내 친구가 물을 많이 마신다.
-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 권이니?

석관고등학교 (서울)

14. 다음 시의 ㉠~㉣에 대한 설명이 가장 바르게 된 것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 ㉠과 같은 시제 표현은 부사어 ‘지금, 이제’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과 ㉢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 있는 시제이다.
- ㉣은 “그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겠니?”와 같은 문장에 쓰인 것처럼 ‘가능성’의 의미를 가진다.
- ㉤은 관형사형 어미 ‘-ㄴ’이 사용된 현재 시제이다.
- ㉠, ㉡, ㉣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었다.

석관고등학교 (서울)

15.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 일부 체언 뒤에 ‘-지다’를 붙여 만들 수도 있다.
- 주어가 직접 행동한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 ‘운전 중에 끼여들기를 하지 마라.’가 바른 표현이다.
-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제목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 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의 7종의 접사를 붙여 표현한다.

석관고등학교 (서울)

16.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중 피동의 사용으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 교환해 주지 않는 업체 측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다.
- ‘모여지다, 쓰여지다, 믿겨지다’ 등과 같은 표현이다.
- 용언의 어간에 ‘-게 되다’를 붙여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 “다음에 들를 장소는 광화문이 되겠습니다.”와 같은 의도로 사용된 표현이다.

핵심 정리

1. 현대 국어와 다른 중세 국어의 특징

음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ㅅ(반치음), ㅍ(순경음 비음), ㅇ(옛이음), ㆍ(아래아)’와 같은 음운이 있었음. 또, ㅎ(여린히을)과 같은 문자도 있었음. •성조를 표시하는 (받침)이 있었음. •‘ㅃ, ㅍ, ㅍ’ 등과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함.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짐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격 조사는 ‘이’와 ‘ㅣ’, 명사형 어미는 ‘-음/-움’이 쓰임.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보다 다양하게 발달함.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고유어가 존재했고,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했으며, 이웃 나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의 외래어가 들어옴.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받침 표기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사용하는 8종성법이 원칙이었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도 쓰임. •한자음은 초기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밝혀 적는 『동국정운』 식으로 표기하다가 점차 실제 발음에 맞게 표기함. •(세로쓰기)를 하였고,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에 구두점을 찍음

2. 「용비어천가」 기관

간체	악장(조선 시대 초기에 궁중에서 종묘 제향 때 부르던 송축가.)
성격	설득적, 서사적, 예찬적, 송축적
주제	조선 건국의 (경당성)을 밝히고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함.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임. •한국 악장 문학의 대표작임.

3. 「세종어제훈민정음」 기관

간체	훈민정음의 서문.
성격	설명적, 교시적
주제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와 목적.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잘 드러나 있음.

4. 「소학언해」 기관

간체	언해
성격	교훈적, 유교적
주제	(효)의 시작과 마침.
의의	16세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御製訓民正音

㉠나랏:말싸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文字:종·와로 서르 스
 밋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홀 ㉢배 아·셔·도 ㅁ·츄·내·제 ·ㅅ·들 사·려 퍼·디 :몬·홀 ·노·미 하
 니·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옛·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쥬·를 밍·?·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나·겨 ·날·로 ·뿌·매
 便·便·安·안·히 ㅎ·고·져 홀 ㅅ·르·미·나·라

<훈민정음> 언해, 1459년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을 읽고 국어의 변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다.
- 중세 국어의 ‘:’(아래 아)는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음운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서 둘 이상의 자음이 쓰일 수 없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의 ‘ㅅ’은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겠군.
- ㉡의 ‘에’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군.
- ㉢의 ‘ㅣ’는 주격조사로,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가 사용되었군.
- ㉣의 ‘하야’를 보니 모음조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을 보니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가락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사용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말싸미’는 ‘일반적인 말’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확대의 예이다.
- ‘사밋다, 전초’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휘 소멸의 예이다.
-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의미했는데, 오늘날 ‘나이가 적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 ‘놈’은 ‘일반 사람’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자,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여 의미 축소의 예이다.
- ‘어옛보다’는 ‘가엾다’를 의미했지만, 오늘날 ‘예쁘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 ㉡, ㉢의 사례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ㅇ’을 입시울소리 아래 니어 쓰면 ㉠입시울 가배야본 소리 드외느니라
 [현대어 풀이]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와 -와 ㄱ와 ㄷ와 ㅂ와 ㅅ는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ㅣ와 ㅏ와 ㅑ와 ㅓ와 ㅕ와란 ㉢올흔녀긔 브터 쓰라.
 [현대어 풀이] ·와 -와 ㄱ와 ㄷ와 ㅂ와 ㅅ는 첫소리 아래 붙여 쓰고 ㅣ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오른쪽에 붙여 쓰라.

- | | | |
|-------------|-------|-----|
| ㉠ | ㉡ | ㉢ |
| ■ 文文字:종 | 나랏 | 퍼디 |
| ■ 百·백·姓·성·이 | ㅎ·고·져 | 니겨 |
| ■ 밍·?·노·니 | 이런 | 달아 |
| ■ 하·여 | ㅁ·츄·내 | 시러 |
| ■ 수·비 | 몬·홀 | 하나라 |

가락고등학교 (서울)

5. <보기>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 ㉡에 해당하는 음운을 각각 쓰시오.

<보기>

훈민정음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만든 다음 이를 기초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자음은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만들었으며,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글자인 이체자가 있었다. 모음도 먼저 ㉡기본자를 만든 후, 이 기본자를 합성시켜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6. <보기>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세국어 표기법을 쓰시오.

<보기>

• 말쓰미	• 쓰들
• 뿌메	• 쓰르미니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訓民正音

㉠나랏:말쓰미 中宗國號에 ㉡달아 文文字:종:와로 서르 스
 뭇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흙:배 이:셔:도 ㅁ:춤:내:제 ㉤쓰:들 사:러 퍼:디 :ㅁ:훈: ·노:미
 하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옛:비 너:겨 ·새:로 ·스:믈:여:들
 字:종:를 ㅁ:그: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너: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의 ㅎ:고:져 ㅎ: 쓰:르:미:나:라

구미고등학교 (경북)

7. 윗글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 : 부사격 조사를 표기할 때 ‘ㅅ’을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 ㉡ : 용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 이어 적기하여 표기하였다.
- ㉢ : 한자어를 표기할 때 형식적으로 종성 ‘ㅇ’을 사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였다.
- ㉣ : 주격 조사를 쓸 때 모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를 쓰지 않고 생략하였다.
- ㉤ : 초성을 쓸 때 합용 병서를 단어의 첫머리에 써서 어두 자음군을 표기하였다.

구미고등학교 (경북)

8.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중세국어와 현대 국의 차이점을 탐구한 자료 중 일부이다. 탐구자료 ㉠~㉤에 들어갈 적절한 예시만을 짝지은 것은?

<보기>		
탐구 영역	탐구 자료	탐구 내용
음운의 측면	㉠	가연 : 중세국어 시기에는 두음 법칙이 없었다고 볼 수 있군.
어휘의 측면	㉡	나연 : 국어가 변화하면서 어떤 어휘는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어휘는 그 의미가 바뀌기도 하는군.
문법과 문법 요소 측면	㉢	다연 : ‘가’가 쓰일 자리에 다른 형태가 쓰인 것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구나.

- | | | |
|--------|------|------------------|
| ㉠ | ㉡ | ㉢ |
| ■ 서르 | 어옛브다 | :ㅁ:훈: ·노:미 하나라 |
| ■ 니르고져 | 어리다 | 흙:배 이:셔:도 |
| ■ 날로 | 전초 | 나:랏 :말:쓰:미 |
| ■ 너겨 | 놈 | :스:믈:여:들 字:종:를 |
| ■ 사름마다 | 나라 |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訓民正音

나랏:ㅁ:말:쓰:미 中宗國號에 달아 文文字:종:와로 서르 스
 뭇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ㅎ:배 이:셔:도 ㅁ:춤:내:제 ·쓰:들 사:러 퍼:디 :ㅁ:훈: ㉡노:미 하
 하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옛:비 너:겨 ·새:로 ·스:믈:여:들
 字:종:를 ㅁ:그: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너:겨 ·날:로 ·뿌:
 메 便:便:安:안:의 ㅎ:고:져 ㅎ: 쓰:르:미:나: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언해본에서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전체 정답>>

5-(2) 조선의 얼, 광화문

1.③ 2.③ 3.④ 4.② 5.⑤ 6.③ 7.① 8.② 9.오늘날 경북궁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첫째, 외형적으로 건축의 아름다움이고 둘째, 내면적으로 조선 왕조의 법궁이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외국인들이 경북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역사의 만만치 않은 저력과 현재적 삶의 역사적 뿌리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여러 문화재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는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우리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 가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10.③ 11.④ 12.② 13.④ 14.④ 15.⑤

5-(3)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1.② 2.① 3.⑤ 4.② 5.③ 6.⑤ 7.③ 8.② 9.상우네 동아리가 사진 전시회를 열기 위해 강당을 3일간 빌리는 것에 구청과 합의하였다. 10.⑤ 11.⑤ 12.③

6-(1) 두근두근 내 인생

1.④ 2.① 3.⑤ 4.② 5.⑤ 6.② 7.㉠ 몽타주 ㉡ 이미지 8.장면 번호,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9.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아름'의 어른스러운 성격과 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용기있는 면모가 드러난다. 10.④ 11.② 12.⑤ 13.③ 14.② 15.② 16.③ 17.⑤ 18.① 19.② 20.⑤ 21.④ 22.③ 23.② 24.① 25.⑤ 26.② 27.① 28.④ 29.④ 30.⑤ 31.③ 32.③ 33.① 34.④ 35.③ 36.② 37.⑤

6-(2)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1.② 2.① 3.⑤ 4.⑤ 5.⑤ 6.(1) 논제는 찬성 측의 입장이 반영된 긍정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꼭 존재해야 한다. 7.⑤ 8.⑤ 9.⑤ 10.㉠: 맥락 ㉡: 목적 ㉢: 매체 11.⑤ 12.② 13.⑤ 14.④ 15.③ 16.④ 17.① 18.⑤ 19.②

7-(1) 국어의 문법 요소

1.② 2.① 3.④ 4.② 5.② 6.④ 7.③ 8.② 9.④ 10.㉠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표현함. 11.① 12.② 13.⑤ 14.⑤ 15.④ 16.② 17.① 18.② 19.⑤ 20.④ 21.③ 22.② 23.⑤ 24.보러가는데 → 뵈러가는데 /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 좋아할 것 → 좋아하실 것 / 3만원 이십입니다 → 3만원입

니다 25.①-시-, -었- ② -이 26.ㄴ-손님, 이 커피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27.④ 28.④ 29.① 30.(1)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음료'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2) 청자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는 것은 어색하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고쳐 써야 한다. 31.③ 32.② 33.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34.② 35.④ 36.'잊혀진다'는 '잊--+히--+어지--+ㄴ--+다'로 이중 피동이므로 '잊힌다'로 고쳐 써야 한다. '생각되어진다'는 '생각--+되--+어지--+ㄴ--+다'로 '-되다'와 '-어지다'가 쓰인 이중 피동이며, 주어 '나'가 생각하는 것이므로,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37.⑤ 38.① 39.② 40.③ 41.④ 42.④ 43.① 44.③ 45.④ 46.① 47.② 48.② 49.② 50.④ 51.③ 52.② 53.㉠-영미는 자기가 곧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54.③ 55.⑤ 56.② 57.⑤ 58.④ 59.② 60.⑤

7-(2) 국어의 어제와 오늘

1.⑤ 2.④ 3.① 4.⑤ 5.㉠ ㄱ, ㄴ, ㄹ, ㅁ, ㅂ, ㅅ, ㅇ ㉡ ㄷ, ㅌ, ㅍ, ㅊ, ㅋ, ㆁ 6.이어적기(연철) 7.⑤ 8.② 9.⑤ 10.③ 11.③ 12.⑤ 13.② 14.③ 15.⑤ 16.'爲彔ᄒᆞ야'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에서는 '위하여'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 '中東國'에의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 '과'로 쓰인다. '스물'이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스물'로 쓰인다. '흉배'에서 보듯이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주격조사 '가가' 중세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17.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다. 18.① 19.어휘 면에서 기존 어휘가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거나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어휘 소멸은 '전츄, 슷디', 의미 이동은 '어린, 어엿비', 의미 축소는 '말씀, 놈'이 그 예이다. 20.③ 21.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22.② 23.③ 24.③ 25.③ 26.② 27.㉠, ㉡, ㉢, ㉣, ㉤, ㉥ 28.③ 29.④ 30.③ 31.⑤ 32.①③ 33.① 34.⑤ 35.공통적으로 설명한